

“왜 사느냐? 나에게도 숙제!”



배우 공유는 “영화 ‘서복’에서 시한부를 선고받은 전직 정보요원을 연기하려고 식단조절로 4kg가량을 조절했다”며 “작품을 위해 힘겨움을 잊고 즐기는 작업이 즐겁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매니지먼트 숲

‘왜 사냐?’... 그렇게 묻거든, 당신은 무어라 답하겠는가. 배우 공유(42)가 묻는다. 그 역시 답을 찾기 위해 나섰다. 15일 극장과 함께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을 통해 동시 공개하는 영화 ‘서복’(감독 이용주·제작 STUDIO101)에서 새롭게 연기를 펼친 이유이기도 하다. ‘서복’은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과, 모종의 음모에 휘말린 그를 지키려 위험에 맞서는 전직 정보요원의 이야기. 박보검이 서복 역을 맡아 연기하는 동안 공유는 과거가 남긴 생체기에 아파하며 삶의 질박함에 빠져든다. 영화는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운명에 놓였으면서, 하지만 또 그만큼 끝없는 탐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며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공유는 “왜 사느냐?”라는 물음이라고 했다. “복제인간이라는 소재와 그 물음이 섞여 어떤 이야기가 될지 궁금했다”는 그는 ‘특’ 건네진 질문에 “당황하고 답하지 못할까 고민하며 겁을 냈다”고 털어놓았다. 출연 제안을 거절했던 까닭이기도 하다.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물. 하지만 또 그만큼 살고 싶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 “그 누가 죽음 앞에서 용감할 수 있을까. 극중 서복이 ‘당신은 살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공유는 그동안 과정을 돌아봤다.

극중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는 힘겨움을 드러내는, 쑥 빠진 볼살도 고민의 깊이를 말해준다. 식단조절로 4kg의 몸무게를 줄여 “깡통 이미지”를 선보이려던 과정은 그러나 ‘배우’로서 공유가 “살아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살을 빼는 과정이 자신에게 “그리 어려운 일 같지는 않다”면서 “작품을 하며 힘겨움을 잊고 즐기는 작업이 재미있다”고 자부했다.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하지만 늘 탐욕에 허우적대는 사람들 복제인간 통해 인간의 삶 반성 식단조절로 4kg 빼... 켈 하죠?



그래도 인위적으로 캐릭터의 외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전히 쉽지 않은 삶을. 그는 대신 이야기의 새로움에서 또 다른 흥미를 찾았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모적인 이야기에는 관심이 잘 가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어려워하지 못했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유는 ‘서복’의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끝내, ‘왜 사느냐?’는 물음의 답을 찾았을까.

“아직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지나간 과거에도 허우적대는 사람이다. 지금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노력할 거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영화의 이야기에 소중함을 더했던 그는 욕심도 내비치지 않았다. “연출자도, 배우도 모두 후회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작품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달게 받겠다”는 다짐도 거기서 나온다.

그리고 다시 묻는다. “왜 사냐?”... 어느 시인은 그저 “웃지요”라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전역돌’,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정용화·강민혁 나란히 수목극 주연 차학연 ‘마인’·박형식 ‘잠중록’ 컴백

‘전역돌’이 안방극장으로 대거 돌아온다. 씨엔블루의 정용화·강민혁, 이정신과 빅스의 차학연(엔), B1A4 진영 등 아이돌 그룹 출신 연기자들이 전역 직후 신작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폭넓은 시청층의 눈도장을 받으면서 공백을 쉽게 메울 수 있는 안방극장을 복귀 무대로 선택했다.

씨엔블루의 세 멤버가 가장 눈길을 끈다. 멤버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주연 드라마를 내놓으면서 시청률 경쟁을 벌인다. 2019년과 지난해 각각 전역한 정용화와 강민혁은 14일부터 방송하는 KBS 2TV ‘대박부동산’과 현재 방송 중인 MBC ‘오! 주인님’의 주연을 맡았다. 같은 수목 드라마로 정면 대결하지만, 저마다 판타지와 로맨스 장르의 매력을 부각시켜 각기 다른 개성을 드러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정신도 지난달 30일 공개된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즌의 드라마 ‘쌈메가이즈’의 주연으로 나서 오랜 만에 시청자를 만났다.

작년 10월 제대한 차학연과 9월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된 진영은 최근 연기자 전문 매니지먼트사인 51k와 비비엔터테인먼트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들



정용화 강민혁 차학연 박형식

통해 연기자로서 새롭게 입지를 다지겠다는 이들은 쉬지 않고 출연 드라마를 결정했다. 차학연은 7일 방송한 tvN 단막극 ‘더 페어’에 이어 5월 방영할 ‘마인’에 출연한다. “배우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다지면서 적극적으로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진영은 8월 KBS 2TV ‘폴리

스 아카데미’의 주연으로 나설 예정이다. 제국의아이들 출신으로 일찌감치 연기자 행보를 걸었던 박형식은 1월 전역하자마자 방송가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를 집필한 정현정 작가의 신작인 tvN ‘잠중록’의 주인공으로 출연할 전망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유튜버’ 홍진경·장영란·홍현희 난리 났네

‘공부왕전재 홍진경’ 대중에 공감대 장영란 ‘네고왕’ 홍현희 ‘빨대퀵’ 인기

홍진경·장영란·홍현희 등 여성 방송인들이 디지털 예능 세계로 잇달아 향하고 있다. 각기 이름을 내건 예능 콘텐츠로 강렬한 개성을 드러내며 시선을 끌어 모으고 있다. ‘유희 진행자’의 저력이다.

올해로 데뷔 28년차인 홍진경은 최근 카카오톡 ‘공부왕전재 홍진경’으로 화제몰이



홍진경 장영란 홍현희

중이다. “11세 딸 라엘이를 가르치다 생긴 공부 의지”를 토대로 수학·영어·역사 등 중학교 교과과목을 다시 들여다보는 콘텐츠이다.

하지만 정작 공부하는 장면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필기구를 쇼핑하고, 간식거리를 사들이는 등 ‘공부 준비’에 힘 쏟는 홍진경의 모습에 많은 이용자들이 “내 모습 같다”며 공감 어린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13일 현재까지 9회분을 공개해 2236만 누적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온라인상에서는 ‘무한도전’의 ‘식스맨’ 특집 등 과거 출연작까지 덩달아 세삼 조명받고 있다.

장영란은 ‘네고왕’으로 대중의 호감을 새롭게 얻었다. 제품 브랜드와 가격을 협상하는 콘텐츠에서 ‘하이렌션’이라 불리는 강한 열정과 남다른 친화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팬이점·커피·다이어트 식품·피자

등 그동안 진행한 ‘네고’ 품목 모두 품절시키면서 ‘화력’을 입증했다. 인기를 발판삼아 최근 데뷔 20년 만에 처음으로 광고도 찍는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

홍현희도 9일부터 공개한 카카오TV ‘빨대퀵’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모티콘·오디오북 출시 등 다양한 부업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려 단번에 170만 뷰를 끌어냈다. (“프로그램 제작”)돈이 모자라면 내 돈을 넣어도 좋다”며 콘텐츠에 대한 열정을 아낌없이 쏟은 결과다. 남편인 인테리어디자이너 제이썬과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홍썬TV’로 43만여 구독자를 보유한 스타 유튜버이기도 하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5

봉준호 감독, 미 아카데미상 시상자로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는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다. 13일(한국시간) 미국 연예 전문 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에 따르면 아카데미 시상식 연출진은 시상자 명단을 일부 공개했다. 영화 전문 매체 인디와이어는 “역사를 만든 봉 감독이 2021년 오스카상에 복귀한다”고 전했다. ‘미나리’는 작품, 감독, 남우주연, 여우조연, 각본, 음악상 등 모두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시상식 측에서는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과 한예리에 참석을 요청했고, ‘미나리’ 출연진은 봉 감독과 함께 오스카 무대를 빛낼 것으로 보인다.

아이오아이, 해체 4년 만에 다시 뭉친다



아이오아이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오아가 데뷔 5주년을 기념해 해체 4년 만에 다시 뭉친다. 13일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오아이는 데뷔일인 5월4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강미나와 현재 중국에 있는 주결경은 아쉽게 불참한다. 전소미, 김세정, 최유정, 김청하, 김소혜, 주결경, 정재연, 김도연, 강미나, 임나영, 유연정으로 구성된 아이오아이는 2016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결성된 그룹으로 1년 간 활동하다 해체했다.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6000만명 돌파



블랙핑크

걸그룹 블랙핑크가 유튜브 구독자 6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저스틴 비버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1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이날 오전 6시 6000만명을 넘겼다. 여자 아티스트가 구독자 6000만명을 달성한 것은 세계에서 블랙핑크가 최다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 수를 확보한 여성 아티스트가 됐다. 이후 에미넴, 에드 시런, DJ 마시멜로를 넘쳤고 현재 비버(6200만명)만을 남겨뒀다.

스윙스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자 1000명 늘어



스윙스

래퍼 스윙스(문지훈)가 장기기증에 서약하자 동참자가 1000명이 늘어났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는 13일 “스윙스가 SNS에 희망등류 사실을 인증한 뒤 본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사람이 3일 동안 무려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대비 무려 600% 늘어난 수치로, 특히 10대 서약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스윙스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스윙스는 지난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공개했다.

임시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000만원 기부



임시완

연기자 임시완이 저소득층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13일 소속사 플럼에이앤씨에 따르면 임시완은 이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000만원을 기부했다. 1월 20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두 번째 선형이다. 임시완은 이번 후원금을 저소득층 보호 종료 아동들의 취업 교육과 자립에 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완은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9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tvN 예능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 시즌2에 출연하고 있다.